

## 온라인 정치참여: 국내·외 연구동향\*

민 희\*\*, 윤 성 이\*\*\*

**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주제어: 온라인 정치참여, 수요자 중심 온라인 참여, 사회경제적 지위, 온라인 미디어 활용, 상징적 참여, 온라인 표현주의적 참여, 온라인 콘텐츠 생산, 민주주의 격차

## A Critical Review on the Study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ed on the De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Min Hee, Yun Seongyi

**Abstract** We explore the issues on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study in Korea compared with international one. More specifically, we characterize Korea's study trends as focusing on "who" is participating while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on what the new "forms" of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re. In other words, domestic studies try to show that online media play a role as a factor promoting bottom-up model of civic participation. Moreover, this function of online media is stimulated by the rapid growing of civic participation during democratization and citizens' deep disapproval of political institutions since then.

However, previous studies are more interested in the expansion of participants, in particular, ordinary people. Therefore, the themes on conceptualizing and categorizing the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seem to have been treated lightly. In this perspective, we need to view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more multidimensional manner. In addition,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as well as "those who participate" in politics. Because the current media environment more tends to provoke citizens' political indifference than ever before. If it comes to that, we will be likely to face the circumstances worrying the democratic divide beyond the digital divide.

Keywords: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bottom-up model of civic participation, social-economic status, online media use, symbolic participation, e-expressive participation, online contents creation, democratic divide

2015년 6월 19일 접수, 2015년 6월 19일 심사, 2015년 6월 25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IA3A2054311).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술연구교수(mhmkh@khu.ac.kr)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yun31@khu.ac.kr)

## I. 서론

이제 온라인 미디어는 우리 정치의 일부가 되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온라인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정치도구 중 하나로서 온라인 미디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한 투표 독려 활동은 어느새 우리의 독창적인 선거캠페인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인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정치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들을 빠르게 선보이는 데, 이와 같은 환경은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자극해 왔다. 연구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들을 시도하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성숙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정치참여 연구의 최근 관심사 역시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정치참여가 주를 이룬다.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실제 몇몇 선거에서 인터넷의 힘을 확인한 우리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학문적 호기심의 고조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면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매우 제각각일 것이다. ‘인터넷이 과연 한국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최근에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과 시민의 정치참여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가정한다는 것을 꼽는다(정재관, 2013: 140-141). 즉, 기존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일수록 투표참여에 더욱 적극적인 것이라는 단선적인 인과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치중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이 정치정보에 접근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투표라는 직접적인 참여행위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과 투표참여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일관된 이론의 부재를 꼽는데, 그 이유로 온라인 미디어의 속성을 제시한다. 온라인 미디어는 제각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미디어의 구조, 속성을 전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McLuhan, 1994). 나아가 온라인 미디어의 구조가 누가, 무엇을, 어떠한 삶의 방식을 살게 하는지 결정하기도 한다(Lessig, 1999).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미디어의 이용자 성향이나 참여 행태 역시 차별적이라는 것이다(박근영, 2015).

마지막으로 혹자는 기존 연구가 온라인 미디어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 혹은 보완 수단과 같은 갈등관계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한다(Margetts, 2013; 박근영, 2015). 그리고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복합적인 미디어 환경(Hybridized Media Environment)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한다(Chadwick, 2013). 즉, 지금은 온라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전통적 미디어, 시민 저널리스트 등과 같은 포괄적 의미의 미디어가 공존한다. 따라서 시민은 전통적 미디어 이용을 중단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미디어를 통합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온라인 미디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험적 연구를 시도할 경우 온라인 미디어의 효과를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상과 같은 견해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재고(再考)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

분은 무엇인지 또한 지금의 현상을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참여의 연구 쟁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한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동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인데,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경우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경우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그리고 국내 연구의 이러한 특징을 한국의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시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정치문화의 특수성과 맥락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출발한 것이다.

## II. 정보통신기술, 온라인 정치참여, 그리고 정치적 맥락

1994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빠르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국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처음 등장했고, 2002년에는 최초의 블로그가 만들어졌다. 1인 미디어로 불리는 블로그는 개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이 소비 주체이자 생산 주체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인터넷진흥원, 2012). 2010년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은 또 한번 우리의 생활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2011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이끌기에 충분했다(인터넷진흥원, 2012). 이 과정에서 어느새 우리는 정보

통신기술 발전지수에 있어서 세계 1위 국가로 발돋움 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파급력은 그 동안 우리의 정치 환경을 좌지우지 하는 변수로 간주되어 왔다.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유로 최근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통신기술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보통신기술은 정치 영역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무슨 효과를 창출하였는가?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현주소가 곧 온라인 정치참여를 다루는 국내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가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누가 참여하는가?'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회구조로 작용해 왔는데, 여기에 '민주화'와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라는 정치적 맥락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고 본다.

첫째, 민주화다.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민주화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크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기점으로 민주화가 이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신장이다. 더욱이 민주화 이후 두드러진 변화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강화된 것인데, 2000년 2만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들 중에서 75% 이상이 1990년대 전후로 설립된 것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시민의신문, 2000; 장우영, 2006 재인용).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민주화 이후 몇몇 선거에서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경험한 바 있다. 예컨대,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노풍'을 꼽을 수 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조직력과 자금력뿐 아니라 유권자의 지지도 갖추지 못한 후보였는데, 불

과 2주 만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푼 확산의 통로로 인터넷이 손꼽힌다. 즉, 노무현 후보의 팬클럽 노사모가 인터넷을 매개로 자발적인 지지자 그룹을 형성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네티즌 파워, 즉 인터넷으로 인한 권력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2002년 대선을 세대 간 대결양상으로 구조화하기도 했다. 인터넷 이용에 능숙한 20-30대 등 젊은 세대가 노무현 후보를, 50-60대 등 중장년 세대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면서, 인터넷이 정치 무관심층인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영향력 있는 도구로 주목 받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 역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수용자 중심의 참여 모델을 앞당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민주화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정치개혁의 지체 및 제도정치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 및 국회와 같은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치 환경은 시민으로 하여금 제도정치를 우회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미디어는 시민의 욕구를 드러내고 여론화하는 주요한 도구로 자리매김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꼽을 수 있다. 이 당시 시민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촛불시위를 조직하는 데, 이 사례는 과거와 다른 시위 참여 방식으로 주목을 받는다. 무엇보다 촛불시위는 기존의 조직 중심의 시위 방식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나 디지털 장비가 개인 중심의 능동적 시위 참여를 도왔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기보다 이슈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산발적인 참여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얻어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급기야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벌이게 된다.

### Ⅲ. 국내 연구의 쟁점: '누가' 참여하는가?

이상과 같은 정치적 맥락으로 인해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국내 연구의 주요 쟁점은 '누가' 참여하는가? 에 관한 문제로 집중되었다. 이 가운데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온라인 정치참여의 양상 또한 다변화되었는데, 이는 참여 주체 중심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정보화 시대 초기에는 웹 1.0 기반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참여의 부상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모바일 사용이 대중화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또 다른 동원(Mobilization) 기제로 주목 받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거시적 수준에서 정치참여의 변화상을 조망하는 시각으로 주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정치참여 행태에 관심을 두는 시각이다. 이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개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참여효과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온라인 정치참여 사례 분석을 통해 정치참여의 변화상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인터넷을 통해 촉발된 자발적인 시민참여 모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정치참여 주체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 과거에는 집단이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치참여가 활발했다면, 정보화 시대에는 네트워크화된 개인(Networked Individual)이 중심이 된 정치참여가 새롭게 부상한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의 개인화와 무선 휴대성,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연결성 등이 연결성의 기본 단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고, 이러한 변화들이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를 촉진한다(라인골드, 2014).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민주적인 정치참여 사례들을 제시한다(민희 외, 2008), 대표적으로 '노사모' 선거캠페인(김진향, 2002; 홍성태, 2002; 윤재관, 2003; 장원

택, 2004; 윤성이 외, 2007; 장우영, 2007),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운동(송경재, 2005; 윤성이 외, 2007),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조화순, 2008; 김용철, 2008; 윤성이, 2009; 윤성이 외, 2008; 이효성, 2008; 고경민 외, 2010)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인터넷이 정치적 관여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낙관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것으로(Rheingold, 1993; Turkle, 1995; Davis, 1999) 정보화 시대의 참여 양식을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정치참여로 특징짓는다. 즉, 인터넷이 기존의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동시에 오프라인 참여 활성화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참여자의 확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하는 '참여군중'의 등장을 확인한다(정연정, 2004; 이효성, 2008). 참여군중은 모바일과 같은 최신 통신기기들을 통해 그물망처럼 연결된 공중을 의미하는 것으로(Rheingold, 2002; 이효성, 2008),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정치참여의 핵심세력이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행동주의 및 문화 창출을 이끄는 것으로 논의된다(정연정, 2005: 25). 또한, 요리(82Cook), 야구(MLB Park) 등과 같은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참여 현상을 두고 정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도 증가한다. 특히, 여성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를 감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예컨대, 놀이의 정치, 감성의 정치, 정치의 문화화, 정치의 희화화와 같은 용어의 등장은 이러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 초기 인터넷은 정치참여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 당시의 정치 환경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도 투표율 저하와 정당 지지자 이탈과 같은 정치참여의 감소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참여자는 누구인가?

한편, 연구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정치변화를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구의 방향을 미시적 측면으로 이동하는데, 개인 수준의 참여행태 연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즉 연구자들의 흥미는 '실제로', '누가' 참여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에 따른 참여 효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하기도 쉽다(Gui, et al., 2011; Van Deursen, et al., 2011; Willien, et al., 2009; Hargittai, 2010). 특히, 연령은 인터넷 이용의 강력한 설명 변수로 간주되는데, 젊은 세대가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이고 기술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다(Hargittai, 2010; Dahlgren, 2011). 2008년 촛불시위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젊은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참여 사례로 꼽힌다. 그 당시 10대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촛불시위 관련 정보를 얻거나 토론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 참여가 오프라인 참여로 확산되는 계기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정치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Tolbert, et al., 2003), 적극적인 시민참여 경향을 보인다(Wellman, et al., 2001).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습득으로 인한 투표율 상승효과는 중·장년층 보다 젊은 세대 유권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난다(강신구, 2011).

더욱이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에 관한 인터넷의 영향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컨대, 트위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달리 개인 중심의 소통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동일한 관심사로 대

화가 가능하고, 정보의 확산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대중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기능을 발휘한다(황유선, 2011: 58). 이러한 측면에서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 활동은 젊은 세대의 투표율을 고조시키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이것은 최근 선거에서의 20대의 투표율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 33.9%를 기록했던 20대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41.1%를 기록해 무려 7.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이, 2008). 2010년 지방선거가 트위터를 통한 투표 독려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고, 이 때 20대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상승 3.9% 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젊은 세대의 온라인 참여와 오프라인 참여 사이의 관계는 눈여겨 볼만 하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미디어의 정치적 효과를 다루는 연구들 중에는 젊은 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의들이 상당하다(류석진 외, 2005; 송효진, 2010; 민영 외, 2011). 그 중에서 민영 외(2011)는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정치참여가 간접적으로 제고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송효진(2010)은 전자정부 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온라인 참여행태를 분석하였는데, 젊은 세대들이 전자정부 사이트 이용에 있어서는 인지적 참여행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 역시 온라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된다(Gibson, et al., 2005). 강신구(2011)는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오프라인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 했는데,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이 투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순식(2011)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이 온라인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만 소극적 참여로 분류되는 정치인, 정당, 국회, 정책 등에 대한 정보검색 활동,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댓글달기 등과 같은 행위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훨씬

더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 2. 온라인 미디어 활용 여부에 따른 참여자는 누구인가?

다른 연구들은 온라인 미디어 활용 여부에 따른 참여 효과를 분석하기도 한다. 정보화 초기 연구들은 주로 웹 1.0 기반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정치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예컨대, 정치정보 습득경로, 정치관련 사이트 및 지역구 후보자 홈페이지 접속, 정치인과의 온라인 토론 경험, 정당·시민단체 사이트 접속,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등이 지지후보 결정이나 변경 혹은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김용철 외(2000)는 16대 총선기간 중 정치관련 사이트 및 후보자 홈페이지 접속경험과 투표참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양쪽 모두 접속률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도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지역구 후보자 홈페이지 방문 여부가 지지후보 결정 및 변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도 보여준다. 조성대 외(2006)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정부에 대한 의견표출행동, 탄핵시위참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투표 설득을 촉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투표참여율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황용석(2001)은 16대 총선에서 정당이나 시민단체 사이트 이용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 정도에도 관심을 갖는다. 최민재 외(2012)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시간과 지지후보자 결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트위터 이용자의 경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박근영(2015)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이 지지후보자 변경에 미치는 영향

〈표 1〉 국내 연구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 유형화

종류	세부 항목
인터넷 사이트	- 정치관련 사이트, 지역구 후보자 홈페이지 접속 - 정당/시민단체 사이트 접속
사이버 커뮤니티	- 가입 여부, 활동 여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 여부 및 평균 이용 시간 - 전통적 미디어 이용자와의 비교

력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트위터 평균사용 시간과 지지후보자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회귀한 경우의 횟수는 정(+)의 관계를 형성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얻는 정보량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이 갖는 민주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미디어 유형별 비교를 시도하기도 했다.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로 매체의 종류를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전통 미디어보다는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있어서 유권자의 결정을 바꾸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영, 2015: 48) 송경재(2011)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정치참여를 비교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정보 습득, 온라인 정치토론 등의 행위에 더욱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오프라인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에서도 적극적이라는 것 또한 제시한다.

### 3.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참여 '유형'은?

그런데, 기존 연구가 이상과 같이 참여자가 '누구' 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다 보니 온라인 참여의 새로운 '유형'을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치참여의 개념으로 전통적 의미의 협소한 정의를 적용한다. 전통적으로 정치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

치고자 하는 의도적인 참여를 일컫는 데(Verba, et al., 1972), 이는 보통 선거참여와 비선거적 참여로 나뉜다. 선거적 참여는 투표참여, 정치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 후원금 기부와 같은 행위를, 비선거적 참여는 정치이슈에 대한 서명이나 시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정치참여의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온라인 정치참여를 유형화 한다. 즉, 온라인상에도 오프라인 상의 정치참여 유형을 그대로 접목한다. 또한, 온라인 정치참여를 오프라인 상의 선거 참여와 비선거적 참여의 대응 개념으로 다루기도 한다(윤성이, 2008). 특히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는 연구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송경재(2010, 2011)의 연구는 기존의 오프라인 정치참여 유형들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한 분석으로 대표적이다. 그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온라인 정치정보 습득 여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쓰기로, 오프라인 정치참여는 정치집회 및 연설회 참여, 정당 및 후보자 자원봉사, 정치사회 이슈에 관한 토론, 정치기부 여부로 구분한다. 정보화가 오프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진만(2011)의 연구 또한 송경재의 정치참여 유형화와 동일하다. 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선거적 참여와 비선거적 참여를 기준으로 정치참여를 세분화하였는데, 온라인 정치 토론/활동, 온라인 정치 글쓰기/이메일 보내기, 오프라인 정치 향위/집회, 오프라인 투표 설득이 바로 그것이다. 온라인 정치 토론/활동은 온라인

〈표 2〉 국내 연구의 온·오프라인 정치참여 유형화

참여 유형	오프라인	온라인
선거적 참여	• 투표참여, 정치후보자 자원봉사, 후원금 기부	• 정치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나 이메일 보내기
비선거적 참여	• 의견표출행동, 시위 참가	• 온라인 상에서 정치토론을 하거나 댓글, 동영상, 패러디 등을 게시하기

상에서 정치토론을 하거나 댓글, 동영상, 패러디 등의 게시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온라인 정치 글쓰기와 이메일 보내기는 정부나 정치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이다. 오프라인 정치의사 표현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를 직접 만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투표 설득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를 설득하는 행위이다. 조성대 외(2006)는 오프라인 정치참여를 일반적인 정치참여와 투표참여로 구분한다. 일반적인 정치참여는 정부의 일에 대한 의견표출 행동, 탄핵시위 참가여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투표설득 여부이다.

#### IV. 해외 연구의 쟁점: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

이에 반해 온라인 정치참여에 관한 해외 연구들은 온라인 참여가 새로운 형태의 참여적 관여(Participatory Engagement)를 형성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Bimber, 2001; Marien, et al., 2010; Stolle, et al., 2005; Whiteley, 2010; Gibson, et al., 2013). 이러한 시각은 정치참여의 범위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까지 포함시키고,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되는 참여의 다층적인 형태(Multiple Form)를 제시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다(Gibson, et al., 2013; Lutz, et al., 2014). 대표적으로 러츠 외(Lutz, et al., 2014)는 온라인 참여를 창조적 차원(Creative Dimension), 사회적 차원(Social Dimension), 동

기적 차원(Motivational Dimension)으로 구분한다. 창조적 차원은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 차원은 콘텐츠 생산 및 공유 활동이 사회적 그룹이나 커뮤니티의 형태로 배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동기적 차원은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한 온라인 활동과 관계가 있다.

한편, Gibson, et al.(2013)의 정치참여 유형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역시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까지 참여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참여(Participation)와 수동적인 관여(Passive Engagement)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 유형을 보여준다. 예컨대, 참여의 영역에는 투표와 같은 선거적 참여에서부터 지역 공동체 활동, 보이콧과 같은 상품 소비 활동이 포함된다. 수동적인 관여는 직접적인 참여 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신문 읽기나 정치에 관해 토론하기, 신문사 편집장에게 편지 보내기와 스티커 부착하기와 같은 표현주의적 행위들을 의미한다(〈표 3〉 참조).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는다. 특히, 연구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참여 유형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참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제기한다(Lutz, et al., 2014). 전통적인 정치참여 개념이 실질적이고 의도적인 정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류재성 외, 2014), 이러한 논쟁은

〈표 3〉 다층적 형태의 온-오프라인 참여

		오프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
참여	투표	투표	전자 투표
	정당/캠페인 활동	정당이나 정치후보자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기부하기	지지자 서명하기, 정당지지 위해 SNS 그룹에 가입하기, 온라인으로 기부하기
	시위 활동	시위, 청원에 서명하기	전자 청원에 서명하기
	접촉	정치인에게 편지 보내기, 전화하기	정치인에게 이메일 보내기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	정치 이슈 중심의 SNS 그룹에 가입하기
	소비	보이콧	e-보이콧
수동적인 관여	뉴스 관심	신문 읽기	인터넷 신문이나 블로그 보기, 유튜브 보기
	토론	정치에 대해 토론하기	온라인 상에서 토론하기
	표현적	편집자에게 편지 보내기, 공공 연설하기, 스티커 붙이기	정치 콘텐츠를 포스팅하거나 포워딩하기

출처: Gibson, et al.(2013: 705).

온라인 미디어 기반의 정치참여와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참여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한 참여가 과연 ‘확실한 참여(True Participation)’인가? 단순히 ‘상징적인 참여(Symbolic Participation)’ 혹은 ‘슬랙티비즘(Slacktivism)’은 아닌가? (Ritzi, et al., 2012)에 관한 논쟁인데, 이를 계기로 온라인 정치참여 중에서도 상징적인 참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다.<sup>1)</sup> Vitak, et al. (2011)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매개로 한 상징적인 참여가 확실한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페이스북의 정치 콘텐츠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과 같은 낮은 수준의 정치참여가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가 정치조직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자원 집약적인(Resource-intensive)참여 행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 상징적인 참여는 온라인 표현주의 참여(e-Expressive Participation)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Rojas, et al.(2009)는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러한 참여 유형을 확인한다. 이들은 온라인 표현주의 참여를 공중의 정치정향의 표현(the Public Expression of Political Orientations)으로 정의하고(Rojas, et al., 2009: 906), 이러한 참여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표현주의 참여보다 더욱 영향력 있고 대중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즉,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댓글을 하는 행위는 신문에 글을 보내거나 배지(Badge)를 착용하는 행위보다 더욱 상호작용적인 경험이다.

온라인 참여에 관한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참여 유형을 더욱 확장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 생산(Online Contents Creation)에 주목한다(Jebkins, 2006; Hargittai, et al., 2008; Correa, 2010; Schradie, 2011; Blank, 2013). 온

1) 물론 국내에서도 상징적인 참여와 유사한 개념이 소개되기도 했다. 임혁백(2011)은 정보화 시대 정치참여의 특징으로 심의적 정치참여에서 표현주의적 또는 자기표출적 정치참여로의 변화를 꼽는다. 여기서 심의적 정치참여는 자기절제와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유형으로, 표현주의적 또는 자기표출적 정치참여는 자신을 드러내고 감성적 자유로움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혁백(2011)은 표현주의적 또는 자기표출적 정치참여의 대표적인 예로 리플 또는 댓글 같은 자기 표출적 글쓰기 방식, 패러디, 동영상 등 이미지 콘텐츠 활성화와 이를 통한 정보 공유를 제시한다.

라인 콘텐츠 생산은 사회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Lutz, et al., 2014), 이 개념에 대한 견해 역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몇몇 연구들은 온라인 참여와 콘텐츠 생산을 동의어로 간주한다(Hargittai, et al., 2008). 반면 다른 연구들은 온라인 참여 개념은 온라인 콘텐츠 생산의 개념을 넘어서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 생산은 본래 단일 차원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산발적인 청중을 다루는 데, 온라인 참여는 공공 담론에 참여하는 사회적이고 상호교류적인 특정 그룹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08; Scdhradie, 2011).

Blank(2013)는 온라인 콘텐츠 생산의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한다. 사회적·오락적 콘텐츠(Social and Entertainment),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Skilled Content), 정치적 콘텐츠(Political Content)가 바로 그것인데, 사회적·오락적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이 낮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에게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혹은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는 젊고, 디지털 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생산한다. 이들은 블로그에 글쓰기, 웹사이트에 머무르거

나, 글을 포스팅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정치적 콘텐츠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정치사회 이슈에 댓글을 달거나 정치적 내용의 글을 퍼 나르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렇듯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새롭게 나타나는 참여 '유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보다 풍부하고 적실성 있게 논의하는 데 유용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외 연구들은 참여 격차 개념을 도입해 왔다(Hargittai, 2002; Hargittai, et al., 2008; Hoffmann, et al., 2015). 이러한 시각 중 하나로 인터넷 이용 행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한 후, 참여 격차의 범위(Scope)와 정도(Prevalence)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예컨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Blank(2013)는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세 가지 유형의 온라인 콘텐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이,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사회적·오락적 콘텐츠와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와 같은 온라인 참여 활동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명했다. 오히려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정치적 콘텐츠와 같은 온라인 참여에서만 가장 우세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하지타이 외(Hargittai, et al., 2008)는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경제적 지

〈표 4〉 온라인 콘텐츠 생산 주요 연구

	콘텐츠 유형	주요 연구 결과
Hargittai, et al.(2008)	창조적인 콘텐츠의 4 가지 유형	연령과 기술적 능력이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에 영향을 미침
Correa (2010)	10개의 콘텐츠 유형	심리적 요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콘텐츠 생산에 영향을 미침
Schradie (2011)	콘텐츠 유형보다 활동에 초점을 맞춤	사회경제적 지위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성향에 영향을 미침
Blank (2013)	정치적 콘텐츠, 기술력을 갖춘 콘텐츠, 사회적·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사회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콘텐츠 생산에 영향을 미침

출처: Hoffmann, et al. (2015)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위가 낮은 사람에 비해 표현주의적인 온라인 참여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V.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폭넓은 해석

물론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참여 '유형' 못지않게 '누가' 참여 하는가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논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참여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참여 기회로부터 동등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불평등이 그대로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고, 고연령층 및 소외계층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한 참여에 소외될 수 있음을 제시해 왔다(금희조 외, 2009). 예컨대, 연령이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누가' 참여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곧 '누가' 참여하지 않는가에 관한 문제와 다름없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위해서 '참여하지 않는 자'에 관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과거와 달리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Prior(2007)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치 회피의 문제를 다룬다. 프라이어는 미국의 미디어 환경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저-선택의 환경(Low-choice Environment)과 고-선택의 환경(High-choice Environment)이 바로 그것인데, 전자는 TV 전성시대를 후자는 케이블 TV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를 의미한다. 프라이어에 따르면, TV 전성시대인 저-선택의 미디어 환경에서 유권자는 정치와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TV가 소수 몇 개의 채널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유권자는 의도적으로든 혹은 비의도적으로든 뉴스에 노출되기 쉬웠다. 반면 케이블 TV와 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는 '선택'의 문제로 간주된다. 즉 케이블 TV와 인터넷이 지상파 TV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증가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유권자가 정치 뉴스를 선택할 가능성을 저하시킨다(Prior, 2002: 11-12). 예컨대 케이블 TV에 가입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미국인의 경우 콘텐츠 선택이 증가했는데 케이블 TV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했다. 즉,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선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저-선택의 미디어 환경보다 고-선택의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의 선호에 기반한 콘텐츠를 더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환경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당파적인 사람들은 정치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중도/무당파 사람들은 비정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두 유권자 층의 투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전자가 후자보다 투표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이 경우 미디어 환경은 민주적인 시스템이 유권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Prior, 2007: 266).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정보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Democratic Divide)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요컨대, 과거 인터넷의 등장으로 발생한 정보격차는 기존의 경제적 소득격차나 교육 수준의 차이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때 민주주의의 작동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이었다. 그렇다면 선호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시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VI. 결론

지금까지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는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동원이론(Mobilization Theory)과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어떤 연구에서 온라인 미디어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증가시켜 손상된 대의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반면, 어떤 연구에서 온라인 미디어는 현실 정치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영향을 미쳐 기존의 엘리트 중심의 참여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상당수의 연구들이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한계로 동원이론과 강화이론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앞에서 이러한 연구 경향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즉,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그 무엇보다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발하는 기회구조로 인식된 데에

는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정치 구조를 변화시킨 온라인 미디어 매개의 수용자 중심의 참여 사례들을 경험한 바 있으며,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관심 역시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로 집중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속하다 보니, 그 동안 국내 연구는 온라인 정치참여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온라인 정치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하기, 정부 관료에게 이메일 쓰기, 온라인에서 정치인과 토론하기, 정치이슈 게시글에 댓글 달기 등과 같은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뿐, 정치참여의 개념과 유형을 다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소홀했다. 오히려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온라인 정치참여를 단순화하여 양자를 비교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참여의 융합화, 즉 정치참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방향전환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금의 환경을 고려할 때(임혁백, 2011), 이러한 연구 경향은 오히려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할 때, 온라인 정치참여를 대하는 우리의 시야 또한 폭넓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참여 유형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기존의 정치참여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아야

〈표 5〉 미국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참여 격차의 특징

저-선택 환경(Low-choice Environment)	고-선택 환경(High-choice Environment)
정치와 불가피한 대면(Politics by Default)	선택에 의한 정치(Politics by Choice)
자원 기반의 격차(Resource-based Divide)	선호 기반의 불평등(Preference-based Inequality)
TV(1950~1960년대)	케이블 TV, 인터넷(1970년대 이후)

출처: Prior(2007)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할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 중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는 참여 유형을 찾아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는 우리에게 나름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해외 연구들은 온라인 미디어를 더욱 참여적, 사회적, 적극적인 도구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미디어의 참여 효과를 분석할 때 미디어 이용의 차별화를 그 무엇보다 고려한다(Lutz, et. al., 014).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참여 개념과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정치참여 유형과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 온라인 미디어 중에서도 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주로 나타나는 상징적인 참여나 표현주의적 참여 그리고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는 온라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초래되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지금의 환경에서의 정보 불평등이 과거의 그것과 다른 성질의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의 해결 방안 또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불평등이 초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격차가 우리 정치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미디어와 민주주의 관계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치 영역에서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강신구 (2011). "정치참여에 대한 인터넷의 차등적 효과." 「평화연구」, 19(2).
- 고경민·송효진 (2010). "인터넷 항의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적 함의: 2008년 촛불시위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10(3).
- 금희조, 조재호 (2010).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 참여." 「한국언론학보」, 54(5).
- 김용철 (2008). "촛불시위의 배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8월.
- 김용철·윤성이 (2000).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34(3).
- 라인골드 하워드 (2014). 김광수 옮김. 「넷스마트」, 서울: 문학동네.
- 류석진·이현우·이원태 (2005).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3).
- 류재성 외 (2014).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변화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보고서.
- 민영·노성종 (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참여." 「한 국언론학회보」, 55(4).
- 민희·윤성이 (2008).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대의제의 적실성 탐색." 「21세기정치학회보」, 19(2).
- 박근영 (2015). "뉴미디어의 소비가 선거에서 지지후보자 변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1).
- 송경재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 탄핵 정국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담론」201 8(3).
- 송경재 (2010).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6(3).
- 송경재 (2011).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7(2).
- 송효진 (2010). "2030 세대의 인터넷 참여와 전자정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 심홍진 (2012).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과 동료집단압력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8(3).
- 윤성이 (2008).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동향과 쟁점: 인터넷선거 연구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5(3).
- 윤성이 (2009). "2008년 촛불과 정치참여 특성의 변화: 행위자, 구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7(1).
- 윤성이·장우영 (2007). "한국의 온라인 정치참여 특성: 수요자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4(2).
- 윤성이·장우영 (200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속초. 8월

- 이효성 (2008).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참여군중(smart mobs)의 정치참여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24(4).
- 임혁백 (2011). "신유목사회의 출현과 정치참여의 변화: 일반적 참여양태와 국제적 비교." 「평화연구」, 2011년 가을호.
- 장우영 (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정보화정책」, 13(3).
- 장우영 (2007). "ICTs 와 정당의 적응." 「국제정치논총」, 47(1).
- 정연정 (2004).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44(2).
- 정연정 (2005). "전자 민주주의와 새로운 시민집단: 네티즌과 참여군중." 「지역사회」, 50.
- 정재관 (2013). "정보통신기술 혁명은 위기의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것인가?: 인터넷 이용의 정치참여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국제관계연구」, 18(2).
- 조성대·정연정 (2006). "사이버커뮤니티와 정보접근, 그리고 정치참여: 17대 총선과정에 나타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22(2).
- 조진만 (2011). "정보화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5(5)
- 조화순 (2008). "온라인 세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정치참여." 「21세기정치학회보」, 18(3)
- 최민재·이홍천·김위근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1년 10·26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사례." 「언론과학연구」, 12(2).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한국 인터넷 30년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홍성태 (2002). "노풍의 사회적 형성과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2).
- 홍순식 (2011). "사회경제적 요인이 온라인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소득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4(2).
-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16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3).
- 황유선 (2011). "트위터 이용이 사회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통 미디어 이용, 정치관심, 트위터 이용패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6).
- Bimber, B. (2001). "Inform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in America: The search for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dividual level."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 Bimber, B., Cunill, M. C., Copeland, L., & Gibson, R. (2015). Digital Media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Interest Across Acts and Over Time.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3(1).
- Blank, G. (2013). "Who creates content? Stratification and content creation on the Interne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6(4).
- Casemajor, N., Couture, S., Delfin, M., Goerzen, M., & Delfanti, A. (2015). "Non-participation in digital media. Toward a framework of mediated political action." *Media, Culture & Society*. 0163443715584098.
- Casteltrione, I. (2015). "The Internet, social networking Web sit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esearch: Assumptions and contradictory evidence." *First Monday*, 20(3).
- Chadwick, A. (2013). *The hybrid media system: Politics and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ea, T. (2010). "The participation divide among online experts: Experience, skills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web content cre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6(1).
- Dahlgren, P. (2011). "Young citize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media and civic cultures." *Taiwan Journal of Democracy*, 7(2).
- Davis, Richard.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ar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ibson, R., & Cantijoch, M. (2013).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articipation in the age of the internet: Is online political engagement really different to offline?." *The Journal of Politics*, 75(03).

- Gibson, R. K., Lusoli, W., & Ward, S. (2005). "Online Participation in the UK: Testing a 'Contextualised' Model of Internet Effects1."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7(4).
- Gui, M., & Argentin, G. (2011). "Digital skills of internet natives: Different forms of digital literacy in a random sample of norther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New Media & Society*, 13(6).
-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YU press.
- Kim, B. J. (2015). "Political efficacy,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trust and extrovers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Differenc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civic/political activitie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2(1).
- Hargittai, Eazter. (2007). "Whose space? Differences among users and non-users of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 Hargittai, Eazter. (2010). "Digital Natives? Variation in Internet Skills and Uses among Members of the Net Generation." *Sociological Inquiry*, 80(1).
- Hargittai, E., & Walejko, G. (2008). "The participation divide: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digital age 1." *Information, Community and Society*, 11(2).
- Hoffmann, C. P., Lutz, C., & Meckel, M. (2015). "Content creation on the Interne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on the participation divid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ahead-of-print).
- Hyun, K. D., & Kim, J. (2015). "Differential and interactive influenc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by different types of news activities and political conversation through social medi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 Lutz, C., Hoffmann, C. P., & Meckel, M. (2014). "Beyond just politic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online participation." *First Monday*, 19(7).
- Marien, S., Hooghe, M., & Quintelier, E. (2010). "Inequalities in Non-institutionalized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Multi-level Analysis of 25 countries." *Political Studies*, 58(1).
- Martin, J. A. (2015). "Mobile news use and participation in elections: A bridge for the democratic divide?." *Mobile Media & Communication*, 3(2).
- Park, H. M., & Perry, J. L. (2008). "Do campaign web sites really matter in electoral civic engagement? Empirical evidence from the 2004 post-election internet tracking surve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6(2).
- Prior, M. (2007). *Post-broadcast democracy: How media choice increases inequality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polarizes elec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MIT press.
- Rheingold, H. (2002). *Smart Mob: The next social revolution: transforming cultures and communities in the age of instant access*. Perseus Publishing.
- Rojas, H., & Puig-i-Abril, E. (2009). "Mobilizers mobilized: Information, expression,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 Schradie, J. (2011). "The digital production gap: The digital divide and Web 2.0 collide." *Poetics*, 39(2).
- Spada, P., Mellon, J., Peixoto, T., & Sjoberg, F. M. (2015). "Effects of the Internet on Particip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7204
- Stolle, D., Hooghe, M., & Micheletti, M. (2005). "Politics in the supermarket: Political consumerism as a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6(3).

- Tolbert, C. J., & McNeal, R. S. (2003). "Unraveling the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2).
- Tur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Age of Internet*. Touchstone, NY, NY, USA.
- Vaccari, C., Valeriani, A., Barbera, P., Bonneau, R., Jost, J. T., Nagler, J., & Tucker, J. A. (2015). Political Expression and Action on Social Media: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wer-and Higher-Threshold Political Activities Among Twitter Users in Italy.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0(2).
- Van Deursen, A., & Van Dijk, J. (2011). "Internet skills and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13(6).
- Varnali, K., & Gorgulu, V. (2015). A social influence perspective on expressiv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witter: the case of #OccupyGezi.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1).
- Verba, S.,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America*. New York: Academic Press.
- Verba, S., Schlozman, K. L., &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Vol. 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itak, J., Zube, P., Smock, A., Carr, C. T., Ellison, N., & Lampe, C. (2011). "It's compli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 Westlund, O. (2015). News consumption in an age of mobile media: Patterns, people, place, and participation. *Mobile Media & Communication*.
- Wolfsfeld, G., Yarchi, M., & Samuel-Azran, T. (2015). "Political information repertoir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New Media & Society*, 1461444815580413.